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강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1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실적 상향

글로벌 이익모멘텀은 정체됐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한국, 미국, 대만의 이익 추정치는 상향. 세계 1주 이익 변화율은 0.00%를 기록했으며 이머징과 아시아(일본 제외)는 각각 0.07%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전환. 반면 한국은 +0.14%로 국가별 1위를 기록했고 대만은 +0.04%로 2위권. 이머징의 하향은 한국·대만을 제외한 브라질(-0.07%), 인도네시아(-0.05%), 이머징 IT(-0.16%) 등에서 발생. 메모리 사이클에 따른 이익 상향이 긴축 사이클과 디커플링되는 가운데 미국도 에너지와 IT를 중심으로 +0.02% 상향

FOMC의 25bp 인상 직후 금리·국제유가 민감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일제히 하향. 항공 -0.16%, 운송인프라 -0.09%, 자동차 -0.07%, 자동차부품 -0.06%, 가정용내구재 -0.05%, 부동산관리·개발 -0.05%를 기록. 반면 해운은 +0.12%, 반도체 +0.06%, 용기·포장 +0.05%로 상향

전주 1위였던 기술하드웨어는 -0.05%로 반전했으나 1개월 기준으로는 +0.46%를 유지. Dell의 단독 효과가 1주 만에 소멸하면서 AI 이익 상향의 무게중심이 시스템 레이어에서 칩·장비로 회귀. 업종 상·하향 기준도 AI 테마 유무에서 금리·국제유가 민감도로 이동 중

9월 FOMC: 9/16, 3년 만의 첫 인상, 만장일치 12대 0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3.75~4.00%로 조정. 점도표에서는 18명 중 16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의 추가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4명은 두 차례 인상을 전망. SEP에서는 2026-2027년 GDP 전망을 상향하고 실업률 전망을 하향. 헤드라인과 근원 PCE 전망은 각각 0.1%p 상향했으며 물가상승률의 2% 도달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 Warsh 의장은 “올여름 물가 지표가 기저 추세의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언급

미국 8월 소매판매: 9/16, 전월 대비 +1.2%

시장 예상치 +0.7%를 크게 웃돌며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9월 BOJ: 9/18, 기준금리 25bp 인상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차입비용이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해운 (1주 +0.12%, 1개월 +0.66%)

이번 주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상향률을 기록. 중동 확전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통항 프리미엄이 유지됐으며 1개월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상향률을 기록

반도체 (1주 +0.06%, 1개월 +0.56%, MediaTek +2.4, Marvell +1.5, AMD +1.4, ASML +1.3, Nvidia +0.9, Intel -0.6)

금리 인상에도 이익 추정치 상향을 유지하며 하향 전환한 기술하드웨어와 대조

상사 (1주 +0.03%, 1개월 +0.11%, Mitsubishi Heavy +1.4)

국제유가와 LNG 가격 강세로 자원 트레이딩 마진이 개선

바이오텍 (1주 +0.03%, 1개월 +0.02%, Gilead +2.9)

Gilead는 3개월 +71.1%로 높은 누적 상향률을 기록

산업복합기업 (1주 +0.03%, 1개월 +0.40%, Boeing +3.7, Hitachi +2.7)

Boeing은 4주 연속 상향 상위권에 포함됐으며 3개월 기준 +45.7%를 기록

소프트웨어 (1주 +0.02%, 1개월 +0.06%, Datadog +1.8, Oracle +1.3, Intuit +1.2, SAP -0.3, Salesforce -0.1)

Intuit는 전주 -12.1%에서 상향으로 반전

하향 업종은

항공(1주 -0.16%, 1개월 -0.13%)

이번 주 가장 큰 폭으로 하향. 국제유가 고착과 금리 인상으로 연료비와 리스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이중 부담으로 작용

운송인프라(1주 -0.09%, 1개월 -0.12%, Prologis -5.2)

Prologis는 커버리지 종목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 물류 부동산 임대 수요 둔화와 금리 급등이 반영

자동차·자동차부품(자동차 1주 -0.07%, 자동차부품 1주 -0.06%)

할부금리 상승에 따른 신차 수요 위축으로 전주 상향에서 하향으로 반전

가정용내구재·부동산관리 및 개발(각각 1주 -0.05%)

모기지 금리 상승이 실적 추정치에 부담으로 작용

기술하드웨어(1주 -0.05%, 1개월 +0.46%, Seagate +1.0)

전주 상향률 1위에서 하향으로 반전하며 Dell의 단독 효과가 소멸. 다만 1개월 누적 상향률은 2위를 유지

다각화통신·무선통신(다각화통신 1주 -0.04%, 무선통신 1주 -0.03%, Comcast -1.1, NTT +1.1)

Comcast는 1년 기준 -22.1%를 기록하며 케이블 부문의 구조적 하향이 지속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Marathon Petroleum, Boeing, Gilead Sciences, Hitachi, MediaTek, Phillips 66, Valero Energy, Merck, Datadog, Marvell, AMD, Mitsubishi Heavy, ASML

하향 주요 종목은 Prologis, SoftBank, Comcast, Investor AB, Shell, LVMH, Tokio Marine, Intel, Air Liquide, ENI, Petrobras, Agnico Eagle, Suncor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는 OP는 275조원(1W -0.6%, 1M +3.2%, QoQ +20.4%). 2026E OP는 987조원(1W -0.3%, 1M -0.1%, YoY +229%). **3Q26F OP 상향 업종**은 건설, 항공, 조선, 2차전지, 반도체, 해운. **하향 업종**은 디스플레이, 기술하드웨어, 정유, 호텔·레저, 유틸리티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3Q26F OP)는 삼성SDI, SK이노베이션, HMM, S-Oil, HD현대 상향. SK, 한국전력, LG화학, 미래에셋증권, LG 하향

3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한미약품, 로보티즈, 삼성SDI, SK이노베이션, HD현대, 한화솔루션, S-Oil, 대한항공, 심텍, HMM, 현대해상, 카카오페이,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 두산밥캣, HD건설기계, 카카오, 삼성전기, LS ELECTRIC, 원익IPS, DB손해보험, 삼성화재, HD한국조선해양, LG이노텍, GS, 아모레퍼시픽, L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현대제철,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산일전기, 에이피알, 삼양식품, 리노공업, 현대오트모버, 하이브, 삼성E&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씨엔에스, 하나금융지주, KCC,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삼성생명, 신한지주, LG전자, 우리금융지주, 고려아연, 한미반도체, 메리츠금융지주, 기업은행, 현대글로벌비스, KT, 에코프로비엠, 카카오뱅크, 주성엔지니어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코웨이, LG유플러스, JB금융지주

외국인은 모든 스타일에서 순매도. 코스피 8.9조원, 코스닥 950억원 순매도.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전기장비, 기술하드웨어, 가전. **순매도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상호미디어, 디스플레이, 유통, 상사

연기금은 중소형주와 가치주를 매수하며 코스피 1,600억원, 코스닥 330억원 순매수.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화학, 건설, 상사, 내구소비재, 2차전지. **연기금 순매도 상위 업종**은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상호미디어, 증권, 자동차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9.21일(월)

경제지표: 미국 8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22일(화)

국채 입찰: 미국 2년물 780억달러

23일(수) ★★ 금주 최대 매크로 이벤트

경제지표: 미국 9월 S&P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PMI 예비치. FOMC 이후 처음 발표되는
실물 체감지표

국채 입찰: 미국 5년물 700억달러

24일(목)

경제지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

국채 입찰: 미국 7년물 440억달러

실적발표: Costco 장 마감 후 / Accenture

25일(금)

경제지표: 미시간대 9월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 Warsh 연준 의장이 명시적으로 방어 대
상으로 지목한 지표

금주 미국 국채 공급 규모는 총 1,920억달러. FOMC 이후 첫 대규모 입찰로 장기금리 방
향성을 결정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는 9월 30일 미국 8월 PCE·개인소득 및 마이크로 FY2026 4분
기 실적, 10월 초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10월 27~28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다
음 FOMC. 10월 27일 FOMC까지 예정된 연준 위원 연설은 없어 금리 변동성 요인이 제
한

Quant Comment

지난 주말 VIX는 16.4%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0으로 3bp 하락, Term
Premium은 0.61bp로 8.8% 하락, SOX는 6% 상승하는 등 위험선호 심리가 총만

이익 데이터에서는 금리·국제유가 민감 업종인 항공(-0.16%), 운송인프라(-0.09%), 자동
차(-0.07%)가 일제히 하향된 반면 반도체(+0.06%)와 해운(+0.12%)은 상향을 유지. 메모
리 사이클이 긴축 사이클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로, 금리 상승 악재 이후 편더멘털
반영 중

10월 27일 FOMC까지 예정된 연준 위원 연설이 없어 경제지표가 완충 없이 반영되는 구
간. 금주 1,920억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과 9월 23일 PMI가 장기금리 방향을 가를 전망

글로벌 방향성에 따라 반도체의 시장 주도력이 회복될 가능성. 다만 달러-원 환율이
1,386원으로 상승 중이며 외국인 수급 부담도 상존

반도체와 고배당·퀄리티 전략이 유효한 시기